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서울신대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63장 다같이

1.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2.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3.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 보아라
4.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6장 12절 인도자

설 교 “용서하는는 삶”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3.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삶

마태복음 6:12

용서는 어렵다. 베푸는 것(give)이 용서(forgive)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는 ‘망각’이라는 뜻인데, 괴로운 과거를 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형들을 용서했을 때 요셉은 요셉다워졌다. 용서로 과거를 끊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피해자가 조건 없이 용서할 때, 가해자는 진심으로 참회하게 되며, 피해자도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서는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을 모두 치유한다. 용서해야 사람이 바뀐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꾼다. 우리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었다. 용서라는 열쇠가 우리 손에 들려있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옥에 살고 있다. 증오심, 복수심, 열등감, 비참함, 설움, 분노, 미움, 원한, 후회의 포로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다.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양자의 관계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가해자에게는 심판자, 피해자에게는 구원자다. 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용서는 사탄의 교두보를 차단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하나님에게 회개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참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해 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용서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관계의 회복이다. ▶화해는 그가 용서를 빌고 용서함으로 켜진다. 그러나 용서는 그가 용서를 빌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상처 난 쓴 뿌리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용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용서했다고 그가 정당해지거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에게 친절히 대할 수 없어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용서는 그가 나에게 한 행동으로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용서는 핏수와 관계없이 내게 평화가 올 때까지 해야 한다. 한 가지 죄를 용서하는 데에는 490번 용서하는 노력이 있어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된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잣대로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본문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 중 ‘용서’ 관련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원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의 순서로 되어 있다. 언어 연구의 대가 요하킴 예레미아스는 “용서하여 준 것 같이”는 ‘동시성의 완료형’으로 본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베드로는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질문했고 예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셨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용서하는 겹손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자였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기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도 용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